



### 목 록

**서두일문** 온 천하가 세계파룬따파일 및 사부님의 생신을 경축.....3

**사부님의 은혜를 회억**  
돌려준 20 원.....6

**만가에 복이 들어왔다** ..... 11  
32 년의 얼굴 마비가 대법을 수련하여 다 나아졌다 / 밀 더미속의 2900 원

**대중의 말** 내리눌러도 넘어지지 않는 벼와 불에 타지 않는 비닐 음료병사리..... 17

**세상민정** 촌민들은 다투어 호신부를 요구하였다 .24  
온 마을은 연합하여 파룬궁을 보호하였다. 떨어져 상한 것은 같으나 결과는 같지 않았다. 북경경찰은“봉쇄의담을 넘어” “3 퇴”하다.



#### 동태망에 올라 봉쇄된 진상을 보자

해외 전자우편으로 아래의 주소에 우편을 보내되 내용은 임의로, 제목은 임의로, 칸은 비우지 않고 하면 약 10분 후 답을 넘는 프로그램을 얻게 된다.  
자유문을 얻는다: freeget.one@gmail.com  
소요유를 얻는다: freeget.two@gmail.com  
봉쇄를 돌파하고 명혜망을 보시는 것을 환영다:  
www.minghui.org

### 목 록

**서두일문** 온 천하가 세계파룬따파일 및 사부님의 생신을 경축.....3

**사부님의 은혜를 회억**  
돌려준 20 원.....6

**만가에 복이 들어왔다** ..... 11  
32 년의 얼굴 마비가 대법을 수련하여 다 나아졌다 / 밀 더미속의 2900 원

**대중의 말** 내리눌러도 넘어지지 않는 벼와 불에 타지 않는 비닐 음료병사리..... 17

**세상민정** 촌민들은 다투어 호신부를 요구하였다 .24  
온 마을은 연합하여 파룬궁을 보호하였다. 떨어져 상한 것은 같으나 결과는 같지 않았다. 북경경찰은“봉쇄의담을 넘어” “3 퇴”하다.



#### 동태망에 올라 봉쇄된 진상을 보자

해외 전자우편으로 아래의 주소에 우편을 보내되 내용은 임의로, 제목은 임의로, 칸은 비우지 않고 하면 약 10분 후 답을 넘는 프로그램을 얻게 된다.  
자유문을 얻는다: freeget.one@gmail.com  
소요유를 얻는다: freeget.two@gmail.com  
봉쇄를 돌파하고 명혜망을 보시는 것을 환영다:  
www.minghui.org

## 탈당탈단탈대 (3 퇴) 방법

- \* 가명, 필명도 마찬가지로 유호
  - \* 해외 전자우편으로 성명을 발표  
tuidang@epochtimes.com
  - \* 인터넷 돌파프로로 등록  
http://tuidang.epochtimes.com
  - \* 탈당전화: 001-416-361-9895 001-888-892-8757
  - \* 탈당팩스 001-510-372-0176 001-702-248-0599
  - \* 먼저 성명을 공공장소에 붙인 후 다시 인터넷에 발표한다
- **제시**: 공포로 인하여 중공은 탈당전화선에 수작을 피웠기에 통한다음 록음에서: 이것은 빈호이기이 이 전화를 치지 마세요. 하면 **속지 말고 전화를 끊지 말며 아주 빨리 통할수 있기에 서로 알려주길 바란다.**
- **당신은 가능하게 나는 사상중에서 일찍 탈퇴하였고 또한 당비도 바치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다. 그것은 모두 무효다. 왜냐하면 그 혈기앞에서 하늘에 대해 독한 선서를 할때 당신은 일생의 생명을 모두 사악한 당에게 받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공개적인 방식을 취하여 탈출하는 행위의 표시가 있어야 만이 이렇게 큰 독한 선서를 없앨수 있으며 하늘이 중공을 멸할 때 평안을 보증할수 있다!**

## 탈당탈단탈대 (3 퇴) 방법

- \* 가명, 필명도 마찬가지로 유호
  - \* 해외 전자우편으로 성명을 발표  
tuidang@epochtimes.com
  - \* 인터넷 돌파프로로 등록  
http://tuidang.epochtimes.com
  - \* 탈당전화: 001-416-361-9895 001-888-892-8757
  - \* 탈당팩스 001-510-372-0176 001-702-248-0599
  - \* 먼저 성명을 공공장소에 붙인 후 다시 인터넷에 발표한다
- **제시**: 공포로 인하여 중공은 탈당전화선에 수작을 피웠기에 통한다음 록음에서: 이것은 빈호이기이 이 전화를 치지 마세요. 하면 **속지 말고 전화를 끊지 말며 아주 빨리 통할수 있기에 서로 알려주길 바란다.**
- **당신은 가능하게 나는 사상중에서 일찍 탈퇴하였고 또한 당비도 바치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다. 그것은 모두 무효다. 왜냐하면 그 혈기앞에서 하늘에 대해 독한 선서를 할때 당신은 일생의 생명을 모두 사악한 당에게 받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공개적인 방식을 취하여 탈출하는 행위의 표시가 있어야 만이 이렇게 큰 독한 선서를 없앨수 있으며 하늘이 중공을 멸할 때 평안을 보증할수 있다!**

외 인터넷에 오를 수 없다고 알려주었다. 그는 매우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고층의 내막을 아주 상세하게 전하는 것을 보았는데 알고 보니 모두가 해외 중문인터넷에서 본 것이라고 하였다.

경찰 동창생은 말하기를 그는 봉쇄벽을 넘는 프로그램 하나가 있는데 아주 좋다고 하지만 어디에서 얻을지 모른다고 하였다. 이번 정치국면의 변화는 매우 크며 그들 소장, 서기마저 모두 긴장한 기분이었다. 그는 스스로도 불안하였는데 만약 금후 파룬궁을 박해하는 정책이 변하여 파룬궁의 억울함을 벗겨준다면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나는 그더러 더는 파룬궁을 박해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우리더러 밤중에 사람을 붙잡으러 가라하면 나는 리유를 만들어 피하겠다. 파룬궁을 적발하는 것이 있다면 나는 꼭 모르는 척하겠다.”

몇일 후 동창생은 나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그는 이미 대기원 인터넷에 탈당을 등기하였다고 하였다. 그는 나에게 친척과 친구에게도 탈출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말하였다 : “그들이 공산당을 욕하는 것이 나보다 더 심하니 말만 하면 꼭 탈출할 것이다”◇ (문/장령)

외 인터넷에 오를 수 없다고 알려주었다. 그는 매우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고층의 내막을 아주 상세하게 전하는 것을 보았는데 알고 보니 모두가 해외 중문인터넷에서 본 것이라고 하였다.

경찰 동창생은 말하기를 그는 봉쇄벽을 넘는 프로그램 하나가 있는데 아주 좋다고 하지만 어디에서 얻을지 모른다고 하였다. 이번 정치국면의 변화는 매우 크며 그들 소장, 서기마저 모두 긴장한 기분이었다. 그는 스스로도 불안하였는데 만약 금후 파룬궁을 박해하는 정책이 변하여 파룬궁의 억울함을 벗겨준다면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나는 그더러 더는 파룬궁을 박해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우리더러 밤중에 사람을 붙잡으러 가라하면 나는 리유를 만들어 피하겠다. 파룬궁을 적발하는 것이 있다면 나는 꼭 모르는 척하겠다.”

몇일 후 동창생은 나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그는 이미 대기원 인터넷에 탈당을 등기하였다고 하였다. 그는 나에게 친척과 친구에게도 탈출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말하였다 : “그들이 공산당을 욕하는 것이 나보다 더 심하니 말만 하면 꼭 탈출할 것이다”◇ (문/장령)

# 온 천하가 세계파룬따파일 및 사분님의 생신을 경축

2012년의 5월 13일은 파룬따파가 전해 온 20주년 기념 일이자 제 13기” 세계 파룬따파 일”이며 또한 파룬따파 창시인 리홍지선생 탄생 61주년이다.



20년전의 이날 리홍지 선생은 길림 장춘에서 제 1기 파룬궁 학습반을 꾸려 대법을 세상에 내놓았고 대법이 세간에서 널리 전하는 문을 열어 놓았다. 파룬따파는 우주특성 “편싼런”으로 사람들더러 마음을 닦고 선을 향하게 지도하며 근본적으로 질병을 제거하고 심신을 정화하며 사람에게 한 갈래 반본귀진의 길을 가리켜 주었다. 짧디짧은 7년사이에 그 신기한 효과로 하여 대법은 신주대지

# 온 천하가 세계파룬따파일 및 사분님의 생신을 경축

2012년의 5월 13일은 파룬따파가 전해 온 20주년 기념 일이자 제 13기” 세계 파룬따파 일”이며 또한 파룬따파 창시인 리홍지선생 탄생 61주년이다.



20년전의 이날 리홍지 선생은 길림 장춘에서 제 1기 파룬궁 학습반을 꾸려 대법을 세상에 내놓았고 대법이 세간에서 널리 전하는 문을 열어 놓았다. 파룬따파는 우주특성 “편싼런”으로 사람들더러 마음을 닦고 선을 향하게 지도하며 근본적으로 질병을 제거하고 심신을 정화하며 사람에게 한 갈래 반본귀진의 길을 가리켜 주었다. 짧디짧은 7년사이에 그 신기한 효과로 하여 대법은 신주대지

에서 신속히 전해졌으며 수련자는 억에 달하였다. 1995년3월 리홍지선생은 요청으로 프랑스에 가서 공을 전수하고 설법하였다. 이로부터 파룬따파는



에서 신속히 전해졌으며 수련자는 억에 달하였다. 1995년3월 리홍지선생은 요청으로 프랑스에 가서 공을 전수하고 설법하였다. 이로부터 파룬따파는



두가지 전혀 부동한 결과가 나타났다. 일념지차에 선한 인연과 악과가 있는데 모든 것은 세인의 선택에 달렸다. 속담에 “하늘에는 예상치 못할 풍운이 있고 사람에게에는 언제 부딪칠지 모르는 복과 화가 있다.(天有不測風雲, 人有旦夕禍福)” 선량한 사람들이여, 만일 당신이 파룬따파에 대하여 아직 료해가 없어도 괜찮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생명이 위험한 긴박한 시기에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찌싼런은 좋다’를 외친다면 당신에게는 생각지도 못하였던 신기한 효과가 있게 될 것이다.◇

### 북경의 경찰은 "담을 넘어" "3퇴"하였다

나의 중학교 동창생은 북경의 한 파출소의 경찰이다. 중경에서 왕립군, 박희래 사건이 발생한 후(2012년 2월 6일 원 중경 공안국장 왕립군은 미국 주재 성도 령사관에 도망하여 정치피난을 요구하였는데 달성하지 못하였다. 왕립군을 북경으로 데려갔고 박희래의 음모가 폭로되어 검사받고 있다.) 동창생은 나에게 인터넷 봉쇄 벽을 넘는 프로그램을 문의하면서 해외 중문인터넷 사이트의 유관보도를 보려 하였다. 그는 파출소에 오직 소장의 인터넷만 봉쇄하지 않았고 그들 기타 사람들은 해

두가지 전혀 부동한 결과가 나타났다. 일념지차에 선한 인연과 악과가 있는데 모든 것은 세인의 선택에 달렸다. 속담에 “하늘에는 예상치 못할 풍운이 있고 사람에게에는 언제 부딪칠지 모르는 복과 화가 있다.(天有不測風雲, 人有旦夕禍福)” 선량한 사람들이여, 만일 당신이 파룬따파에 대하여 아직 료해가 없어도 괜찮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생명이 위험한 긴박한 시기에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찌싼런은 좋다’를 외친다면 당신에게는 생각지도 못하였던 신기한 효과가 있게 될 것이다.◇

### 북경의 경찰은 "담을 넘어" "3퇴"하였다

나의 중학교 동창생은 북경의 한 파출소의 경찰이다. 중경에서 왕립군, 박희래 사건이 발생한 후(2012년 2월 6일 원 중경 공안국장 왕립군은 미국 주재 성도 령사관에 도망하여 정치피난을 요구하였는데 달성하지 못하였다. 왕립군을 북경으로 데려갔고 박희래의 음모가 폭로되어 검사받고 있다.) 동창생은 나에게 인터넷 봉쇄 벽을 넘는 프로그램을 문의하면서 해외 중문인터넷 사이트의 유관보도를 보려 하였다. 그는 파출소에 오직 소장의 인터넷만 봉쇄하지 않았고 그들 기타 사람들은 해

는 졸다를 읽고 한편으로는 대법 사부님의 설법록  
음을 들었더니 대룡은 날마다 좋아졌다. 몇일 후  
할빈 의과대학에 가서 다시 검사하였는데 교수는  
별일 없다면서 정말로 신기하다고 하였다. 한달이  
지난 후 대룡은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었으며 지  
금은 돈을 벌려고 외지로 나갔다.

대룡은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였다. 그  
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말하였다 : 파룬따파가  
나의 생명을 구해 주었어요 !

대룡의 집 이웃 마을에 소군(小軍)이라 부르는  
전공이 있는데 40 살 되는 남자였다. 한번은 그가  
넘어져 팔을 상하였는데 파룬궁학원이 그에게 알  
려주기를 :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를 읽으면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다고 하였으나 그는 믿지  
않았다. 그에게 하늘이 중공을 멸하려 하니 3 퇴하  
면 명을 보호할 수 있다고 알려 주었지만 그는 역  
시 듣지 않으면서 또한 말하기를 나는 갖은 애를  
다 써서야 비로서 당에 가입하였는데 나는 탈출하  
지 않겠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던 줄으나 파룬궁  
의 말만 하지 말아요. 2011년 2월 그는 공중 작업  
중에 떨어져 식물인으로 되었는데 40~50 만원을  
쓰고도 아직도 병원에 누워있다.

두가지 전혀 부동한 인식은 위험에 닥쳤을 때

는 졸다를 읽고 한편으로는 대법 사부님의 설법록  
음을 들었더니 대룡은 날마다 좋아졌다. 몇일 후  
할빈 의과대학에 가서 다시 검사하였는데 교수는  
별일 없다면서 정말로 신기하다고 하였다. 한달이  
지난 후 대룡은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었으며 지  
금은 돈을 벌려고 외지로 나갔다.

대룡은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였다. 그  
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말하였다 : 파룬따파가  
나의 생명을 구해 주었어요 !

대룡의 집 이웃 마을에 소군(小軍)이라 부르는  
전공이 있는데 40 살 되는 남자였다. 한번은 그가  
넘어져 팔을 상하였는데 파룬궁학원이 그에게 알  
려주기를 :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를 읽으면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다고 하였으나 그는 믿지  
않았다. 그에게 하늘이 중공을 멸하려 하니 3 퇴하  
면 명을 보호할 수 있다고 알려 주었지만 그는 역  
시 듣지 않으면서 또한 말하기를 나는 갖은 애를  
다 써서야 비로서 당에 가입하였는데 나는 탈출하  
지 않겠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던 줄으나 파룬궁  
의 말만 하지 말아요. 2011년 2월 그는 공중 작업  
중에 떨어져 식물인으로 되었는데 40~50 만원을  
쓰고도 아직도 병원에 누워있다.

두가지 전혀 부동한 인식은 위험에 닥쳤을 때

해외에서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1999년 7월부터 중공은 선량한 파룬  
궁 수련자들에 대한 잔혹한 박해를 발동하였다. 13  
년간의 잔혹한 박해속에서도 대법제자들은 올바른  
믿음을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끝까지 견지하면서  
진상을 밝히고 양지를 부르는 과정에서 대법의 아  
름다움을 펼치고 만 천하에 전파하였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파룬따파의 주요 서적은  
이미 30 여종의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파룬따파는  
이미 세계 백여개 나라와 지역에 널리 전파되었다.  
여러 나라. 여러 지방정부와 단체조직에서는 분분  
히 표창장, 지지의안 통과 및 “파룬따파 월”, “파  
룬따파 주”, “파룬따파 일” 과 “리홍지 일”등을 선  
포하는 여러가지 형식으로 파룬따파를 지지하였다.  
이것은 대법은 이미 민족과 시공을 초월한 거대한  
위덕과 호소력이 있다는 것을 뚜렷하게 나타내었다.

2000년 5월 대법이 세인에게 전한 위대한 날  
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러나라 파룬따파 학회에서  
공동으로 5월 13일을 “세계파룬따파 일”로 결정지  
었다. 이로부터 전 세계 대법제자와 선량한 민중들  
은 해마다 함께 이 날을 경축하면서 대법이 우리  
들 생명에게 가져다준 희망과 아름다움을 서로 함  
께 누리였다.◇

해외에서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1999년 7월부터 중공은 선량한 파룬  
궁 수련자들에 대한 잔혹한 박해를 발동하였다. 13  
년간의 잔혹한 박해속에서도 대법제자들은 올바른  
믿음을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끝까지 견지하면서  
진상을 밝히고 양지를 부르는 과정에서 대법의 아  
름다움을 펼치고 만 천하에 전파하였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파룬따파의 주요 서적은  
이미 30 여종의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파룬따파는  
이미 세계 백여개 나라와 지역에 널리 전파되었다.  
여러 나라. 여러 지방정부와 단체조직에서는 분분  
히 표창장, 지지의안 통과 및 “파룬따파 월”, “파  
룬따파 주”, “파룬따파 일” 과 “리홍지 일”등을 선  
포하는 여러가지 형식으로 파룬따파를 지지하였다.  
이것은 대법은 이미 민족과 시공을 초월한 거대한  
위덕과 호소력이 있다는 것을 뚜렷하게 나타내었다.

2000년 5월 대법이 세인에게 전한 위대한 날  
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러나라 파룬따파 학회에서  
공동으로 5월 13일을 “세계파룬따파 일”로 결정지  
었다. 이로부터 전 세계 대법제자와 선량한 민중들  
은 해마다 함께 이 날을 경축하면서 대법이 우리  
들 생명에게 가져다준 희망과 아름다움을 서로 함  
께 누리였다.◇

사부님의 은혜를 회여



# 돌려 준 20원

문 / 대륙 파룬궁학원

【명혜망】 나는 금년에 70 살이며 아주 행운스러운 할머니이다. 1994년 7월 15일 나는 연분으로 리홍지 사부님의 호남 진주(湖南郴州) 학습반에 참가하여 친눈으로 사부님을 뵈고 사부님의 설법을 친히 들었으며 사부님의 크나큰 자비와 신기한 공능을 몸소 감수하였다.

## 진주 파룬궁 학습반에서의 기묘한 경험

1994년 7월, 한 여름 남방의 작은 성시는 무더운 날씨에 바람 한점도 없었다. 호남진주 여자배구 훈련기지인 초라한 체육관안에는 냉방기도 없고 의자가 없어 8~9백명 되는 사람들은 신문지를 바닥에 깔고 앉았는데 몹시 붐비었다. 진주 파룬궁 학습반은 바로 이곳에서 진행되었다.

당시 52살이었던 나는 죽을 병에 들어 병원에서조차 속수무책이었다. 심한 풍습성 관절염, 자궁출혈, 메니얼귀이막합병증(Meniere 美尼尔氏综合症),

사부님의 은혜를 회여



# 돌려 준 20원

문 / 대륙 파룬궁학원

【명혜망】 나는 금년에 70 살이며 아주 행운스러운 할머니이다. 1994년 7월 15일 나는 연분으로 리홍지 사부님의 호남 진주(湖南郴州) 학습반에 참가하여 친눈으로 사부님을 뵈고 사부님의 설법을 친히 들었으며 사부님의 크나큰 자비와 신기한 공능을 몸소 감수하였다.

## 진주 파룬궁 학습반에서의 기묘한 경험

1994년 7월, 한 여름 남방의 작은 성시는 무더운 날씨에 바람 한점도 없었다. 호남진주 여자배구 훈련기지인 초라한 체육관안에는 냉방기도 없고 의자가 없어 8~9백명 되는 사람들은 신문지를 바닥에 깔고 앉았는데 몹시 붐비었다. 진주 파룬궁 학습반은 바로 이곳에서 진행되었다.

당시 52살이었던 나는 죽을 병에 들어 병원에서조차 속수무책이었다. 심한 풍습성 관절염, 자궁출혈, 메니얼귀이막합병증(Meniere 美尼尔氏综合症),

하라고 말하였다.

집으로 돌아 온 가족들은 CT 사진, 핵자공진(磁共振)등 검사증을 가지고 성내 제일 큰 병원—할빈 의과대학에 가서 문의하였더니 교수도 치료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가족들은 마음이 놓이지 않아 또 무당(巫医)을 찾아 보고서 대리몸 종이를 불에 태웠어도 쓸모가 없자 또 스님을 찾아 사주를 보았더니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안됩니다고 하였다. 그는 한창 지옥에서 형을 받고 있는데 그의 전세의 빛군들이 빛 받으러 왔어요 ……모든 방법은 죄다 쓸모없어 오직 죽기를 기다려야 했다.

바로 가족들이 후사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한 파룬궁 학원이 그의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진상을 말해주고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줄다를 읽고 하늘의 뜻에 부합되면 바로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가족들은 중공사당의 거짓말의 독해를 받아 그다지 믿지 않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으니 읽어보자고 하였다. 잇따라서 MP3으로 대룡에게 대법 사부님의 설법록음을 듣게 하였다. 3~4 시간 후에 기적은 나타났다. 대룡은 움직일 수 있었으며 그는 손으로 귀에 꽂고 있는 MP3을 쥐려 하였다. 온 가족들은 친눈으로 대법의 신기함을 견증하였다. 바로 이렇게 한견으로는 파룬따파

하라고 말하였다.

집으로 돌아 온 가족들은 CT 사진, 핵자공진(磁共振)등 검사증을 가지고 성내 제일 큰 병원—할빈 의과대학에 가서 문의하였더니 교수도 치료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가족들은 마음이 놓이지 않아 또 무당(巫医)을 찾아 보고서 대리몸 종이를 불에 태웠어도 쓸모가 없자 또 스님을 찾아 사주를 보았더니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안됩니다고 하였다. 그는 한창 지옥에서 형을 받고 있는데 그의 전세의 빛군들이 빛 받으러 왔어요 ……모든 방법은 죄다 쓸모없어 오직 죽기를 기다려야 했다.

바로 가족들이 후사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한 파룬궁 학원이 그의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진상을 말해주고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줄다를 읽고 하늘의 뜻에 부합되면 바로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가족들은 중공사당의 거짓말의 독해를 받아 그다지 믿지 않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으니 읽어보자고 하였다. 잇따라서 MP3으로 대룡에게 대법 사부님의 설법록음을 듣게 하였다. 3~4 시간 후에 기적은 나타났다. 대룡은 움직일 수 있었으며 그는 손으로 귀에 꽂고 있는 MP3을 쥐려 하였다. 온 가족들은 친눈으로 대법의 신기함을 견증하였다. 바로 이렇게 한견으로는 파룬따파

나의 남편도 단식하면서 반박해를 시작하였다. 단식하여 10일 될 때 모든 촌민과 정의인사들의 도움하에 남편은 무죄로 석방되었다. 같이 갇혀있던 사람들은 모두 대법의 아름다움을 보았으며 모두 따라서 외쳤다: ‘파룬따파는 좋다’.

선악에는 보응이 있다. 우리를 도와준 촌장은 연속 3번 우리 마을의 촌장으로 당선되었다. 연속 3기를 임명받으면 국가 공무원이며 퇴직하면 바로 퇴직금이 있다. 하지만 우리를 박해한 파출소 소장은 듣자니 그의 아내가 백혈병에 걸려 치료에 아주 많은 돈을 들여야 한다고 한다. 이것은 정말로 선악에 보응이 있음이 추호의 틀림도 없다.”◇

### 떨어져 상한 것은 같으나 결과는 같지 않았다

【명혜망 • 흑룡강에서 온 소식】 대룡(大龙)은 금년에 25 살이며 흑룡강 할빈시 아성구 양수향(阿城区杨树乡)의 보통농민이다. 2011 년 6 월 그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부주의로 골짜기에 떨어졌는데 혼미상태로 3—4 시간 지난 후에야 비로서 아성구 인민병원으로 호송되었다. 근 한달간의 구급치료를 거쳐 10 여만원을 썼지만 그 어떠한 호전도 없이 여전히 혼미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였다. 마지막에 병원에서는 희망이 없으니 후사준비를

나의 남편도 단식하면서 반박해를 시작하였다. 단식하여 10일 될 때 모든 촌민과 정의인사들의 도움하에 남편은 무죄로 석방되었다. 같이 갇혀있던 사람들은 모두 대법의 아름다움을 보았으며 모두 따라서 외쳤다: ‘파룬따파는 좋다’.

선악에는 보응이 있다. 우리를 도와준 촌장은 연속 3번 우리 마을의 촌장으로 당선되었다. 연속 3기를 임명받으면 국가 공무원이며 퇴직하면 바로 퇴직금이 있다. 하지만 우리를 박해한 파출소 소장은 듣자니 그의 아내가 백혈병에 걸려 치료에 아주 많은 돈을 들여야 한다고 한다. 이것은 정말로 선악에 보응이 있음이 추호의 틀림도 없다.”◇

### 떨어져 상한 것은 같으나 결과는 같지 않았다

【명혜망 • 흑룡강에서 온 소식】 대룡(大龙)은 금년에 25 살이며 흑룡강 할빈시 아성구 양수향(阿城区杨树乡)의 보통농민이다. 2011 년 6 월 그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부주의로 골짜기에 떨어졌는데 혼미상태로 3—4 시간 지난 후에야 비로서 아성구 인민병원으로 호송되었다. 근 한달간의 구급치료를 거쳐 10 여만원을 썼지만 그 어떠한 호전도 없이 여전히 혼미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였다. 마지막에 병원에서는 희망이 없으니 후사준비를

뇌막염 후유증, 동맥혈관 종양, 만성간염 등등 나의 몸에는 거의 없는 병이 없었다. 여름에는 랭수욕도 할 수 없었으며 다리는 아파서 걸기가 힘들어 하루가 일년 같았다.

나는 오토바이 택시에 앉아 체육관에 와서 앞줄에 앉았다. 사부님의 용모는 자비롭고 상서로왔으며 몸은 웅장하고 목소리도 우렁찼다. 나는 주위의 학원들과 마찬가지로 땀이 철철 흘러 신문지로 힘껏 부채질 하였다. 사부님은 웃으면서 말씀하셨다: “부채질을 하면 할수록 더우니 당신이 내려놓으면 바로 작은 바람이 솔솔 당신의 주위를 에둘 것이다.” 나는 사부님의 말씀을 듣고서 신문지를 놓자 정말로 바람이 솔솔 주위에서 도는 감을 느꼈다. 나는 놀라고도 기뻐서 옆쪽의 사람과 말하였다. “정말이에요!”

나는 주위의 학원들이 가부좌를 하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부러웠다. 나도 가부좌를 하려 하였으나 나의 다리는 외 다리 가부좌를 하여도 “고사포(高射炮)”처럼 쳐들리었다. 나는 힘껏 다리를 내리 눌렀다. 이때 사부님께서 위에서 하시는 말씀이 들렸다: “당신의 다리가 지금은 가부좌를 하지 못하여도 괜찮으니 이



뇌막염 후유증, 동맥혈관 종양, 만성간염 등등 나의 몸에는 거의 없는 병이 없었다. 여름에는 랭수욕도 할 수 없었으며 다리는 아파서 걸기가 힘들어 하루가 일년 같았다.

나는 오토바이 택시에 앉아 체육관에 와서 앞줄에 앉았다. 사부님의 용모는 자비롭고 상서로왔으며 몸은 웅장하고 목소리도 우렁찼다. 나는 주위의 학원들과 마찬가지로 땀이 철철 흘러 신문지로 힘껏 부채질 하였다. 사부님은 웃으면서 말씀하셨다: “부채질을 하면 할수록 더우니 당신이 내려놓으면 바로 작은 바람이 솔솔 당신의 주위를 에둘 것이다.” 나는 사부님의 말씀을 듣고서 신문지를 놓자 정말로 바람이 솔솔 주위에서 도는 감을 느꼈다. 나는 놀라고도 기뻐서 옆쪽의 사람과 말하였다. “정말이에요!”

나는 주위의 학원들이 가부좌를 하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부러웠다. 나도 가부좌를 하려 하였으나 나의 다리는 외 다리 가부좌를 하여도 “고사포(高射炮)”처럼 쳐들리었다. 나는 힘껏 다리를 내리 눌렀다. 이때 사부님께서 위에서 하시는 말씀이 들렸다: “당신의 다리가 지금은 가부좌를 하지 못하여도 괜찮으니 이



후에 수련하면 천천히 가부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마음을 내려놓고 열심히 사부님의 강의를 들었다.

들으면서 나는 졸리기 시작하였는데 마음으로 생각하였다. 사부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어떻게 졸릴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사부님을 존경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자신을 힘껏 꼬집으면서 스스로 졸지 않도록 하였다. 이때 사부님께서는 또 위에서 말씀하셨다: “당신이 졸음이 오면 졸아도 된다. 나의 강의가 끝나면 당신도 잠에서 깨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머리에 병이 있기에 당신을 잠그 어두지 않으면 조절할 때 당신은 견디기 어렵기 때문이다.” “원래 사부님께서는 나의 신체를 조절해 주고 있었다.” 나는 알았다. 강의시간에 나는 모두 자는듯 마는듯 하였지만 깨어난 후 도리어 정력이 왕성하고 매우 편안하였다.

중간 휴식시간때 사부님은 강단에서 내려왔는데 학원들은 모두 에워싸고 이것저것 물었다. 사부님께서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하나하나 대답해 주셨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 학원들을 책망하였다: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당신들은 도리어 사부님을 물샴틈없이 에워싸고 어찌 몇 분이라도 사부님더러 휴식하도록 하지 않는가?” 사부님은 추호

후에 수련하면 천천히 가부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마음을 내려놓고 열심히 사부님의 강의를 들었다.

들으면서 나는 졸리기 시작하였는데 마음으로 생각하였다. 사부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어떻게 졸릴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사부님을 존경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자신을 힘껏 꼬집으면서 스스로 졸지 않도록 하였다. 이때 사부님께서는 또 위에서 말씀하셨다: “당신이 졸음이 오면 졸아도 된다. 나의 강의가 끝나면 당신도 잠에서 깨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머리에 병이 있기에 당신을 잠그 어두지 않으면 조절할 때 당신은 견디기 어렵기 때문이다.” “원래 사부님께서는 나의 신체를 조절해 주고 있었다.” 나는 알았다. 강의시간에 나는 모두 자는듯 마는듯 하였지만 깨어난 후 도리어 정력이 왕성하고 매우 편안하였다.

중간 휴식시간때 사부님은 강단에서 내려왔는데 학원들은 모두 에워싸고 이것저것 물었다. 사부님께서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하나하나 대답해 주셨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 학원들을 책망하였다: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당신들은 도리어 사부님을 물샴틈없이 에워싸고 어찌 몇 분이라도 사부님더러 휴식하도록 하지 않는가?” 사부님은 추호

먹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당신에게 부어 넣겠다’ 몇사람이 오더니 나를 대청에 들고가서 4~5사람이 나를 둘러놓고 나의 입을 억지로 벌려 관을 꼽고 음식을 부어넣었다. 내가 숨이 막혀 즉시로 질식할 것만 같자 그들은 그제야 멈추었다. 하지만 그만두려 하지 않으면서 또 나를 강제로 병원으로 데려갔다. 의사선생은 말하기를: ‘우리는 부어넣을 수 없어요. 생명이 위험해요.’ 감옥의 의사는 말하기를: ‘당신들이 부어넣지 않겠다면 내가 부어넣겠다’ 그들은 또 나를 누르고 아직 부어넣지도 않았는데 나는 경련상태가 나타났다. 그들은 그제야 비로서 폭행을 멈추었다.

나와 시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왔다. 아직 자유를 얻지 못한 남편을 위하여 우리는 변호사에게 문의하기 시작하였다. 변호사가 말하기를: ‘법을 실시를 파괴하였다는 것은 기실 한가지 아주 두리몽실한 죄명이며 바로 큰 모자를 들썩우고서 당신들을 진압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또 물었다: ‘우리 집에서 컴퓨터 등 물품을 가져갔는데 범죄가 아니지요?’ 변호사는 말하기를: ‘이것은 완전히 당신 개인의 재산이며 신앙에는 마땅히 선전품이 있는 것이고 모두 합법적이다.’ 시어머니는 날마다 공안국에 가서 국장을 찾아 사람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다.

먹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당신에게 부어 넣겠다’ 몇사람이 오더니 나를 대청에 들고가서 4~5사람이 나를 둘러놓고 나의 입을 억지로 벌려 관을 꼽고 음식을 부어넣었다. 내가 숨이 막혀 즉시로 질식할 것만 같자 그들은 그제야 멈추었다. 하지만 그만두려 하지 않으면서 또 나를 강제로 병원으로 데려갔다. 의사선생은 말하기를: ‘우리는 부어넣을 수 없어요. 생명이 위험해요.’ 감옥의 의사는 말하기를: ‘당신들이 부어넣지 않겠다면 내가 부어넣겠다’ 그들은 또 나를 누르고 아직 부어넣지도 않았는데 나는 경련상태가 나타났다. 그들은 그제야 비로서 폭행을 멈추었다.

나와 시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왔다. 아직 자유를 얻지 못한 남편을 위하여 우리는 변호사에게 문의하기 시작하였다. 변호사가 말하기를: ‘법을 실시를 파괴하였다는 것은 기실 한가지 아주 두리몽실한 죄명이며 바로 큰 모자를 들썩우고서 당신들을 진압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또 물었다: ‘우리 집에서 컴퓨터 등 물품을 가져갔는데 범죄가 아니지요?’ 변호사는 말하기를: ‘이것은 완전히 당신 개인의 재산이며 신앙에는 마땅히 선전품이 있는 것이고 모두 합법적이다.’ 시어머니는 날마다 공안국에 가서 국장을 찾아 사람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다.

사람이 되려나.

우리가 이런 좋은 사람이 되려는 것이 잘못되었나요?

공안국에 가자 그들은 우리더러 전화하라고 하면서 전화하지 않으면 사람을 놓아주지 않겠다고 하였다. 나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 ‘우리는 썩, 썩, 른을 믿는데 어디에로 전화하겠는가? 그래 우리더러 가, 악, 투 쪽으로 전화하란 말인가? 헌법 36조에 규정하기를 : 공민은 신앙자유가 있고 우리는 국가의 그 어떠한 법률 법칙을 위반하지 않았다.’ 그리고 경찰에게 귀주성 평당현 장포향에 커다란 천연석이 있는데 위에는 놀랍게도 ‘중국공산당망’이란 큰 6글자가 나타났는데 지질학자들의 고찰에 의하면 그 어떠한 인공으로 조각한 흔적이 없다고 한다.

국보대대 부대장은 그들 사무실의 컴퓨터로 찾아보고 나서 놀라하면서 말하기를 : ‘아니 정말로 이 몇글자가 있다.’ 깊은 밤 1시경에 우리집 3 사람을 간수소에 가두었다.

나와 시아버지는 모두 단식항의로 우리의 무죄를 항변하였다. 우리는 범인이 아니며 이곳의 밥을 먹지 않겠다. 감옥의 의사는 말하기를 : ‘밥을

사람이 되려나.

우리가 이런 좋은 사람이 되려는 것이 잘못되었나요?

공안국에 가자 그들은 우리더러 전화하라고 하면서 전화하지 않으면 사람을 놓아주지 않겠다고 하였다. 나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 ‘우리는 썩, 썩, 른을 믿는데 어디에로 전화하겠는가? 그래 우리더러 가, 악, 투 쪽으로 전화하란 말인가? 헌법 36조에 규정하기를 : 공민은 신앙자유가 있고 우리는 국가의 그 어떠한 법률 법칙을 위반하지 않았다.’ 그리고 경찰에게 귀주성 평당현 장포향에 커다란 천연석이 있는데 위에는 놀랍게도 ‘중국공산당망’이란 큰 6글자가 나타났는데 지질학자들의 고찰에 의하면 그 어떠한 인공으로 조각한 흔적이 없다고 한다.

국보대대 부대장은 그들 사무실의 컴퓨터로 찾아보고 나서 놀라하면서 말하기를 : ‘아니 정말로 이 몇글자가 있다.’ 깊은 밤 1시경에 우리집 3 사람을 간수소에 가두었다.

나와 시아버지는 모두 단식항의로 우리의 무죄를 항변하였다. 우리는 범인이 아니며 이곳의 밥을 먹지 않겠다. 감옥의 의사는 말하기를 : ‘밥을

의 피로도 없어 보였으며 줄곧 학원들의 문제를 대답해 주었고 또 이어서 강의를 하였다. 첫 날 강의를 듣고나서 나는 온 몸이 가벼워지는 감을 느꼈으며 뜻밖에도 스스로 걸어서 집으로 갔다. 녀자 배구 훈련기지로부터 나의 집까지는 거의 한시간 로정이 걸리는데 나의 발걸음은 바람에 실린듯이 매우 가벼웠다. 함께 간 직장동료들은 모두 아주 놀라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내가 아주 심한 풍습성 관절염이 있어 걸기가 힘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눈물은 끊임없이 줄줄 흘러 내렸다. “이 공법은 정말로 신기하며 사부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두 진짜이다! 사부님께서서는 나의 생명을 구해주셨다!”

**전수반이 끝난 후 나에게 학비 20 원을 돌려주었다**

사부님의 전수반은 보통 모두 9 날이 걸리며 수금 표준은 매인당 50 원이었다. 이런 수금 표준은 당시 전국 범위내에서 말하자면 제일 낮은 금액이었으며 기타 문파의 기공학습반의 가격은 모두 몇배 더 높았다. 진주 전수반은 특수한 원인으로 단 4 일만 하였다. 사실 단지 4 일이라 하지만 사부님께서서는 힘을 조금도 적게 들이지 않았다. 응당 강의해야 할 것과 주어야 할 것을 전부 다 강의

의 피로도 없어 보였으며 줄곧 학원들의 문제를 대답해 주었고 또 이어서 강의를 하였다. 첫 날 강의를 듣고나서 나는 온 몸이 가벼워지는 감을 느꼈으며 뜻밖에도 스스로 걸어서 집으로 갔다. 녀자 배구 훈련기지로부터 나의 집까지는 거의 한시간 로정이 걸리는데 나의 발걸음은 바람에 실린듯이 매우 가벼웠다. 함께 간 직장동료들은 모두 아주 놀라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내가 아주 심한 풍습성 관절염이 있어 걸기가 힘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눈물은 끊임없이 줄줄 흘러 내렸다. “이 공법은 정말로 신기하며 사부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두 진짜이다! 사부님께서서는 나의 생명을 구해주셨다!”

**전수반이 끝난 후 나에게 학비 20 원을 돌려주었다**

사부님의 전수반은 보통 모두 9 날이 걸리며 수금 표준은 매인당 50 원이었다. 이런 수금 표준은 당시 전국 범위내에서 말하자면 제일 낮은 금액이었으며 기타 문파의 기공학습반의 가격은 모두 몇배 더 높았다. 진주 전수반은 특수한 원인으로 단 4 일만 하였다. 사실 단지 4 일이라 하지만 사부님께서서는 힘을 조금도 적게 들이지 않았다. 응당 강의해야 할 것과 주어야 할 것을 전부 다 강의

하고 주었으며 한가지도 빠짐없이 사부님께서서는 4일간 모든 과목을 강의하셨다. 사부님께서서는 낮과 저녁을 리용하여 시간을 더하면서 강의하였다.

학습반이 결속 된후 7 월말 나의 직장의 장모 모는 (사부님이 법과 공을 전수하는 학습반의 공작 인원이었다) 나를 찾아 말하기를 : “학습반 학비는 단 30 원만 받기에 당신에게 20 원을 돌려줘요.” 나는 캐 물었다 : “왜 돈을 돌려줘요? 일반 기공반은 모두 결속지을 때 돈을 더 받는데 당신들은 돈을 돌려주다니. 8~9 백명에게 모두 돌려주려면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실말을 하면 나는 돈을 더 받는 것을 보았지 주동적으로 돈을 돌려주는 것은 처음 보았다. 장씨는 말하기를 “그래요. 반드시 돌려주어야 해요 사부님의 요구한 것이예요! 왜냐하면 학습반의 시간을 단축하였기에 사부님께서서는 반드시 학비를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돈을 받아든 나의 마음은 감동의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다. “이 공법은 너무나도 바르며 파룬궁 사부님은 너무나도 좋아요!”

듣자니 매우 많은 학비는 학습반이 결속지은 후 공작인원들이 당사자를 하나하나 룽속 찾아 돌려주었다고 한다. 1997 년에 진주 파룬궁 보도장의 공작인원은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제일 마지막 학

하고 주었으며 한가지도 빠짐없이 사부님께서서는 4일간 모든 과목을 강의하셨다. 사부님께서서는 낮과 저녁을 리용하여 시간을 더하면서 강의하였다.

학습반이 결속 된후 7 월말 나의 직장의 장모 모는 (사부님이 법과 공을 전수하는 학습반의 공작 인원이었다) 나를 찾아 말하기를 : “학습반 학비는 단 30 원만 받기에 당신에게 20 원을 돌려줘요.” 나는 캐 물었다 : “왜 돈을 돌려줘요? 일반 기공반은 모두 결속지을 때 돈을 더 받는데 당신들은 돈을 돌려주다니. 8~9 백명에게 모두 돌려주려면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실말을 하면 나는 돈을 더 받는 것을 보았지 주동적으로 돈을 돌려주는 것은 처음 보았다. 장씨는 말하기를 “그래요. 반드시 돌려주어야 해요 사부님의 요구한 것이예요! 왜냐하면 학습반의 시간을 단축하였기에 사부님께서서는 반드시 학비를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돈을 받아든 나의 마음은 감동의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다. “이 공법은 너무나도 바르며 파룬궁 사부님은 너무나도 좋아요!”

듣자니 매우 많은 학비는 학습반이 결속지은 후 공작인원들이 당사자를 하나하나 룽속 찾아 돌려주었다고 한다. 1997 년에 진주 파룬궁 보도장의 공작인원은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제일 마지막 학

백성들은 연합서명 보증서로 파룬궁 수련자를 무죄석방할 것을 요구하였다.

촌장과 치보주임은 온 마을 촌민의 연합보증서를 가지고 공안국장을 찾아 말하였다 : “우리 촌민은 좋은 사람이 확실하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온 마을이 연합하여 보증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 마을에는 두명의 도적이 갇혀 있는데 우리는 왜 그들을 보증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나쁜 사람이 들어가면 우리는 기쁘기 때문이다.”

당사자인 파룬궁 학원은 후에 소개하기를 : “우리집은 마을에서 공인하는 모범 가정이다. 나와 시어머니는 십몇년간 종래로 모순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마을에서 주는 물건이 있으면 주동적으로 주인에게 가져다 주었다. 물건을 살때 상인이 우리에게 돈을 더 주면 우리는 모두 대방에게 되 돌려 주었다. 한번은 화학비료를 살때 우리에게 화학비료 한주머니를 더 주었는데 이튿날 나와 남편은 주인에게 돈을 가져다 주었더니 주인은 놀라면서 말하였다 : ‘내가 20여년간 매매를 하면서 물건을 더 주는 일이 늘 발생하여도 종래로 돈을 가져다 준 사람은 없었다.’ 주인은 또 전화번호를 달라하고 또 취재를 하겠다고 하였다. 나는 그에게 알려 주었다. 우리는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이며 좋은

백성들은 연합서명 보증서로 파룬궁 수련자를 무죄석방할 것을 요구하였다.

촌장과 치보주임은 온 마을 촌민의 연합보증서를 가지고 공안국장을 찾아 말하였다 : “우리 촌민은 좋은 사람이 확실하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온 마을이 연합하여 보증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 마을에는 두명의 도적이 갇혀 있는데 우리는 왜 그들을 보증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나쁜 사람이 들어가면 우리는 기쁘기 때문이다.”

당사자인 파룬궁 학원은 후에 소개하기를 : “우리집은 마을에서 공인하는 모범 가정이다. 나와 시어머니는 십몇년간 종래로 모순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마을에서 주는 물건이 있으면 주동적으로 주인에게 가져다 주었다. 물건을 살때 상인이 우리에게 돈을 더 주면 우리는 모두 대방에게 되 돌려 주었다. 한번은 화학비료를 살때 우리에게 화학비료 한주머니를 더 주었는데 이튿날 나와 남편은 주인에게 돈을 가져다 주었더니 주인은 놀라면서 말하였다 : ‘내가 20여년간 매매를 하면서 물건을 더 주는 일이 늘 발생하여도 종래로 돈을 가져다 준 사람은 없었다.’ 주인은 또 전화번호를 달라하고 또 취재를 하겠다고 하였다. 나는 그에게 알려 주었다. 우리는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이며 좋은

내는 날을 기다리는 수 밖에 없었다 ……그가 소를 기르던 할아버지가 잃어버린 소를 찾았다는 소식을 들은 후 그는 생각하였다 : 나도 시험해 보자.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찌싼런은 좋다”를 읽었더니 기적은 과연 나타났다. 한달도 되기 전에 여러 관절에서 고름이 흐르지 않았으며 점차적으로 딱지가 생겼는데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한 사람으로 되었다. 아무 농사일이나 다 할수 있게 되어 아내와 아이도 데려오고 일가족은 또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위에서 말한 기적으로 하여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내가 파룬따파를 수련하는 것을 알고서 너도나도 다투어 나와 파룬따파 호신부를 달라고 하였다. ◇

### 온 마을은 연합하여 파룬궁을 보호하였다

사실은 중국대륙 동북 모성의 한 농촌에서 발생하였다. 2011년 신년 직전에 몇명의 경찰들이 갑자기 파룬궁 학원의 집에 뛰쳐들어와 그 어떠한 법적절차도 없이 불법으로 파룬궁의 서적, 컴퓨터, 타자기, DVD등 물품을 빼앗아 갔다. 로소 3대 5 식구인데 어린아이와 할머니를 제외하고 아버지 어머니와 할아버지는 모두 붙잡혀 갔다. 온 마을

내는 날을 기다리는 수 밖에 없었다 ……그가 소를 기르던 할아버지가 잃어버린 소를 찾았다는 소식을 들은 후 그는 생각하였다 : 나도 시험해 보자.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찌싼런은 좋다”를 읽었더니 기적은 과연 나타났다. 한달도 되기 전에 여러 관절에서 고름이 흐르지 않았으며 점차적으로 딱지가 생겼는데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한 사람으로 되었다. 아무 농사일이나 다 할수 있게 되어 아내와 아이도 데려오고 일가족은 또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위에서 말한 기적으로 하여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내가 파룬따파를 수련하는 것을 알고서 너도나도 다투어 나와 파룬따파 호신부를 달라고 하였다. ◇

### 온 마을은 연합하여 파룬궁을 보호하였다

사실은 중국대륙 동북 모성의 한 농촌에서 발생하였다. 2011년 신년 직전에 몇명의 경찰들이 갑자기 파룬궁 학원의 집에 뛰쳐들어와 그 어떠한 법적절차도 없이 불법으로 파룬궁의 서적, 컴퓨터, 타자기, DVD등 물품을 빼앗아 갔다. 로소 3대 5 식구인데 어린아이와 할머니를 제외하고 아버지 어머니와 할아버지는 모두 붙잡혀 갔다. 온 마을

원의 학비를 이미 돌려주었다. 그녀는 북방의 한 할머니였는데 이곳으로 친척집에 왔다가 학습반에 참가하였던 것이다. ”

1999년 7월 강택민은 중공을 조종하여 파룬궁을 박해하면서 오히려 사부님이 “재물을 굶어 모은다(斂財)”고 모독하였다. 그러나 사부님은 이런 모독에도 선의로 그들에게 진상을 알리라고 하였다. 중공의 파룬궁박해자들은 명령에만 복종하고 흑백을 뒤바꾸는 거짓으로 나중에는 그들 자신이 스스로 벌을 받게 됨을 알게 될것이다. ◇



### 32년의 얼굴 마비가 대법을 수련하여 다 나아졌다

문 / 산둥대법제자 봉계

【명혜망】 나는 금년에 74 살이며 파룬궁을 수련하기 전에 나의 삶은 고달프고 힘겨웠다. 나를 가장 골치 아프게 한 것은 나의 얼굴 마비였는데 이런 고통과 시달림은 나의 반평생을 동반하였다.

내가 26 살 되던 그해 정월 12 일 아침 아직 날이 채 밝지도 않았는데 나는 당나귀를 몰고서 마을의 가루방에 가서 고구마 가루를 내었다. 돌아

원의 학비를 이미 돌려주었다. 그녀는 북방의 한 할머니였는데 이곳으로 친척집에 왔다가 학습반에 참가하였던 것이다. ”

1999년 7월 강택민은 중공을 조종하여 파룬궁을 박해하면서 오히려 사부님이 “재물을 굶어 모은다(斂財)”고 모독하였다. 그러나 사부님은 이런 모독에도 선의로 그들에게 진상을 알리라고 하였다. 중공의 파룬궁박해자들은 명령에만 복종하고 흑백을 뒤바꾸는 거짓으로 나중에는 그들 자신이 스스로 벌을 받게 됨을 알게 될것이다. ◇



### 32년의 얼굴 마비가 대법을 수련하여 다 나아졌다

문 / 산둥대법제자 봉계

【명혜망】 나는 금년에 74 살이며 파룬궁을 수련하기 전에 나의 삶은 고달프고 힘겨웠다. 나를 가장 골치 아프게 한 것은 나의 얼굴 마비였는데 이런 고통과 시달림은 나의 반평생을 동반하였다.

내가 26 살 되던 그해 정월 12 일 아침 아직 날이 채 밝지도 않았는데 나는 당나귀를 몰고서 마을의 가루방에 가서 고구마 가루를 내었다. 돌아

올 때 왼쪽 머리가 아파났는데 련속 몇일간 아팠다. 정월 18 일날 아침 8시에 일어나서 가마에 물을 끓여 옷을 씻으려고 부엌에 쭈크리고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입이 의상하다는 감이 들어 거울을 보자마자 마음은 대번에 발꿈치까지 싸늘해졌다. 나의 입과 눈은 비뚤어지고 왼쪽 눈가죽과 얼굴은 모두 처져 내려와 추악하기 그지 없었다. 젊은 나이에 어떻게 사람을 보겠는가, 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대번에 흘러내렸다. 더욱 귀찮은 것은 왼쪽 얼굴이 말을 듣지 않기에 왼쪽 눈을 감을 수 없어 바람이 불면 바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녁에 잠잘때도 눈을 감지 못하고 왼쪽 이발로 밥을 먹을 수 없었으며 밥을 먹거나 물을 마시자면 입에 물고 있을수 없었다. 하여 도처에 다니면서 의사를 찾았으며 큰 병원에도 갔었고 민간의사한테도 보였으며 여러가지 희귀한 처방도 써보았다. 수술은 두번 하고 약을 먹고 침구를 하고 주사를 맞고 무엇이든 다 해 보았다. 돈도 팔고 두 다리가 닳도록 다녔으나 그 어떤 호전도 없었다. 나는 마음이 조급한 나머지 화가 치밀었다. 신체 정황도 갈수록 나빠져 병이란 병은 다 생겼다. 비염. 위염. 만성 담낭염. 두통병등. 일단 두통병이 도질때면 나는 바로 밖에나가 걸었는데 바람을 마주하고 걸어야 비로서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다. 마치 미친것 같

올 때 왼쪽 머리가 아파났는데 련속 몇일간 아팠다. 정월 18 일날 아침 8시에 일어나서 가마에 물을 끓여 옷을 씻으려고 부엌에 쭈크리고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입이 의상하다는 감이 들어 거울을 보자마자 마음은 대번에 발꿈치까지 싸늘해졌다. 나의 입과 눈은 비뚤어지고 왼쪽 눈가죽과 얼굴은 모두 처져 내려와 추악하기 그지 없었다. 젊은 나이에 어떻게 사람을 보겠는가, 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대번에 흘러내렸다. 더욱 귀찮은 것은 왼쪽 얼굴이 말을 듣지 않기에 왼쪽 눈을 감을 수 없어 바람이 불면 바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녁에 잠잘때도 눈을 감지 못하고 왼쪽 이발로 밥을 먹을 수 없었으며 밥을 먹거나 물을 마시자면 입에 물고 있을수 없었다. 하여 도처에 다니면서 의사를 찾았으며 큰 병원에도 갔었고 민간의사한테도 보였으며 여러가지 희귀한 처방도 써보았다. 수술은 두번 하고 약을 먹고 침구를 하고 주사를 맞고 무엇이든 다 해 보았다. 돈도 팔고 두 다리가 닳도록 다녔으나 그 어떤 호전도 없었다. 나는 마음이 조급한 나머지 화가 치밀었다. 신체 정황도 갈수록 나빠져 병이란 병은 다 생겼다. 비염. 위염. 만성 담낭염. 두통병등. 일단 두통병이 도질때면 나는 바로 밖에나가 걸었는데 바람을 마주하고 걸어야 비로서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다. 마치 미친것 같

잃게 되면 유일한 경제래원이 끊게 되는 것과 같았다. 할아버지는 갑자기 나의 오빠가 점을 좀 칠 줄 아는 (일종 세간의 작은 도이다) 것이 생각났다. 차표 살 돈이 없어 60리를 걸어서 나의 오빠 집에 가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나의 오빠더러 소가 어디로 갔는가를 봐 달라고 하였는데 나의 오빠는 이미 파룬따파를 수련하였기에 그런 세간소도를 하지 않았으므로 할아버지더러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찌싼런은 좋다”를 읽으면 소를 찾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간 후 두 늙은 량주는 성심으로 나의 오빠가 알려준대로 하였더니 이튿 날 소는 스스로 돌아왔으며 그리고는 집 옆칸에 들어왔다.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같은 마을에 네식구가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남자는 불행하게도 골수병에 걸려 생활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몸의 매관절마다 거의 다 고름이 흘러내려 더러운 구린내가 났으며 오랜 시간을 치료하여도 낫지 않았다. 돈도 다 써버렸기에 그의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 버렸다. 년로한 모친이 남아서 그를 보살피면서 보



잃게 되면 유일한 경제래원이 끊게 되는 것과 같았다. 할아버지는 갑자기 나의 오빠가 점을 좀 칠 줄 아는 (일종 세간의 작은 도이다) 것이 생각났다. 차표 살 돈이 없어 60리를 걸어서 나의 오빠 집에 가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나의 오빠더러 소가 어디로 갔는가를 봐 달라고 하였는데 나의 오빠는 이미 파룬따파를 수련하였기에 그런 세간소도를 하지 않았으므로 할아버지더러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찌싼런은 좋다”를 읽으면 소를 찾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간 후 두 늙은 량주는 성심으로 나의 오빠가 알려준대로 하였더니 이튿 날 소는 스스로 돌아왔으며 그리고는 집 옆칸에 들어왔다.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같은 마을에 네식구가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남자는 불행하게도 골수병에 걸려 생활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몸의 매관절마다 거의 다 고름이 흘러내려 더러운 구린내가 났으며 오랜 시간을 치료하여도 낫지 않았다. 돈도 다 써버렸기에 그의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 버렸다. 년로한 모친이 남아서 그를 보살피면서 보



이 있는 사람은 모두 알고 있다. 기관절개 수술의 칼자리는 성대의 아래쪽에 있으며 이런 수술을 하였다면 근본상 이렇게도 빨리 정상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목소리가 땡땡하게 노래 부른다는 것은 더욱더 안된다. 그러기에 국제 사회에서는 중앙텔레비전의 분신자살 록상을 보고서 모두 놀라워하면서 증공은 “의학기적을 창조하였다!”고 하였다.



### 세상민정 **촌민들은 다투어 호신부를 요구하였다**

문 / 호남파룬궁학원

이것은 나의 본가집 마을에서 생긴 두가지 신기한 일이다. 우리마을에는 세 식구가 살고 있는 집이 있다. 할아버지는 암소 한마리를 키웠는데 파종계절이 오면 여러 집들에서는 그의 소를 쓰기에 이것은 그들의 유일한 경제래원이었다. 할머니는 꼬부랑이었는데 허리는 90도로 굽혀 있었고 하나인 아들은 외지에 가서 일을 하기에 근본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으며 집은 깨줄기에 진흙을 이겨 지은 집이었다. 어느 하루는 소가 보이지 않아 도처로 찾으려 다녔으나 찾지 못하였다. 7일째 되자찾을 가망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다. 이 소를

았다. 때로는 웃고 싶어 웃으면 통제할 수 없었고 그렇지 않고 울기만 하면 역시 통제불능이었다. 후에 한동안은 머리가 아플 때면 바로 잠을 잤는데 끝없이 잤다.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잤으며 하루종일 자고 한달내내 잤으니 밥도 지을 수 없었다. 이런 시달림에 나는 뼈만 앙상하였고 사는 것이 죽기보다 못하였으며 고통속에서 억지로 버티었다.

하늘에 눈이 있어 고생끝에 락이 왔다.

바로 1996년 5월 3일 마을의 한 파룬궁 학원이 집에 찾아와서 나의 얼굴 마비 이런 병은 파룬궁을 련마하면 나아질 수 있다고 하였다. 나의 병은 이미 30 여년이 되는데 이렇게도 오랜 병도 될 수 있겠나요? 그녀는 오직 진정으로 수련한다면 보증코 나을 것이며 나을 수 있을 뿐더러 또 좋은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수련될 수 있으며 뿐만아니라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것은 신이 아닌가요? 이렇게도 좋은 일이 있나요? 나는 가 봐야겠어요. 바로 이렇게 나는대법의 문에 들어섰다.

이어서 련공하고 대법의 진서 《전법륜》을 보고 사부님의 설법록상을 보았다. 9 날의 록상을 보고나니 심신의 변화가 너무나도 기묘하였다. 머리도 아프지 않고 눈을 뜰 수 있고 마음도 갑갑하지

이 있는 사람은 모두 알고 있다. 기관절개 수술의 칼자리는 성대의 아래쪽에 있으며 이런 수술을 하였다면 근본상 이렇게도 빨리 정상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목소리가 땡땡하게 노래 부른다는 것은 더욱더 안된다. 그러기에 국제 사회에서는 중앙텔레비전의 분신자살 록상을 보고서 모두 놀라워하면서 증공은 “의학기적을 창조하였다!”고 하였다.



### 세상민정 **촌민들은 다투어 호신부를 요구하였다**

문 / 호남파룬궁학원

이것은 나의 본가집 마을에서 생긴 두가지 신기한 일이다. 우리마을에는 세 식구가 살고 있는 집이 있다. 할아버지는 암소 한마리를 키웠는데 파종계절이 오면 여러 집들에서는 그의 소를 쓰기에 이것은 그들의 유일한 경제래원이었다. 할머니는 꼬부랑이었는데 허리는 90도로 굽혀 있었고 하나인 아들은 외지에 가서 일을 하기에 근본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으며 집은 깨줄기에 진흙을 이겨 지은 집이었다. 어느 하루는 소가 보이지 않아 도처로 찾으려 다녔으나 찾지 못하였다. 7일째 되자찾을 가망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다. 이 소를

았다. 때로는 웃고 싶어 웃으면 통제할 수 없었고 그렇지 않고 울기만 하면 역시 통제불능이었다. 후에 한동안은 머리가 아플 때면 바로 잠을 잤는데 끝없이 잤다.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잤으며 하루종일 자고 한달내내 잤으니 밥도 지을 수 없었다. 이런 시달림에 나는 뼈만 앙상하였고 사는 것이 죽기보다 못하였으며 고통속에서 억지로 버티었다.

하늘에 눈이 있어 고생끝에 락이 왔다.

바로 1996년 5월 3일 마을의 한 파룬궁 학원이 집에 찾아와서 나의 얼굴 마비 이런 병은 파룬궁을 련마하면 나아질 수 있다고 하였다. 나의 병은 이미 30 여년이 되는데 이렇게도 오랜 병도 될 수 있겠나요? 그녀는 오직 진정으로 수련한다면 보증코 나을 것이며 나을 수 있을 뿐더러 또 좋은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수련될 수 있으며 뿐만아니라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것은 신이 아닌가요? 이렇게도 좋은 일이 있나요? 나는 가 봐야겠어요. 바로 이렇게 나는대법의 문에 들어섰다.

이어서 련공하고 대법의 진서 《전법륜》을 보고 사부님의 설법록상을 보았다. 9 날의 록상을 보고나니 심신의 변화가 너무나도 기묘하였다. 머리도 아프지 않고 눈을 뜰 수 있고 마음도 갑갑하지

않고 걸어도 다리에 힘이 생기여 나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1996 년에 법을 얻어서부터 지금까지 주사와 약은 나와 인연이 없게 되었다.

사부님께서 나에게 얼굴과 머리를 청리하여 주실 때 내가 단번에 받아 당하기 어려웠다가봐 조금 조금씩 청리하였다. 어느날 갑자기 코에서 피가 흘렀는데 처음에는 검은 피방울이 흘러내렸다. 밀알같은 크기의 피덩어리가 아주 단단하여 부서 지지 않았다. 이것은 모두 다년간의 어혈이었다. 후에 거의 날마다 출혈하였으며 더 후에는 가끔 출혈하였고 이런 상태는 오랜 시간을 지속하였다.

지금의 나는 얼굴이 반듯하고 입도 반듯하고 눈도 반듯하다. 밥을 먹던 물을 마시던 모두 정상이다. 30 여년간 말을 잘 듣지 않던 왼쪽 얼굴 왼쪽 눈가죽 왼쪽 이발은 자유롭게 회복되었는데 그런 거뽀함은 나를 날마다 즐겁게 하였다. 과거에 어떤 사람들은 나를 “입 삐뚤이 아매”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어떤 사람들은 나를 “늙은 아이”라고 부른다. 나는 온 몸에 힘이 솟구치며 정말로 걷는 것이 바람을 일구듯 하였는데 젊은이들도 따르지 못한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내가 갈수록 더욱 젊어지며 얼굴에는 홍조가 비끼고 피부가 여리고 주름이 없어 50~60 살 되어 보인다고 한다. 왜냐하면 대법

않고 걸어도 다리에 힘이 생기여 나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1996 년에 법을 얻어서부터 지금까지 주사와 약은 나와 인연이 없게 되었다.

사부님께서 나에게 얼굴과 머리를 청리하여 주실 때 내가 단번에 받아 당하기 어려웠다가봐 조금 조금씩 청리하였다. 어느날 갑자기 코에서 피가 흘렀는데 처음에는 검은 피방울이 흘러내렸다. 밀알같은 크기의 피덩어리가 아주 단단하여 부서 지지 않았다. 이것은 모두 다년간의 어혈이었다. 후에 거의 날마다 출혈하였으며 더 후에는 가끔 출혈하였고 이런 상태는 오랜 시간을 지속하였다.

지금의 나는 얼굴이 반듯하고 입도 반듯하고 눈도 반듯하다. 밥을 먹던 물을 마시던 모두 정상이다. 30 여년간 말을 잘 듣지 않던 왼쪽 얼굴 왼쪽 눈가죽 왼쪽 이발은 자유롭게 회복되었는데 그런 거뽀함은 나를 날마다 즐겁게 하였다. 과거에 어떤 사람들은 나를 “입 삐뚤이 아매”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어떤 사람들은 나를 “늙은 아이”라고 부른다. 나는 온 몸에 힘이 솟구치며 정말로 걷는 것이 바람을 일구듯 하였는데 젊은이들도 따르지 못한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내가 갈수록 더욱 젊어지며 얼굴에는 홍조가 비끼고 피부가 여리고 주름이 없어 50~60 살 되어 보인다고 한다. 왜냐하면 대법

리웃도 입지 않고 마스크와 모자도 쓰지 않고서 세균이 가득 묻어있는 마이크를 들고서 가까운 거리에서 묻고 있었다.

● 분신자살 보도에서 의사가 말하기를 분신자살자에게 기관절개 수술을 하였는데 바로 성대 아래의 목에 관을 꽂고서 호흡을 도와주는 것이다. “분신자살”녀자아이 류사영은 기관을 절개한 4 일 후 관을 꼽은 채로 기자의 취재를 받았는데 목소리가 쉿쉿할 뿐만아니라 노래도 불렀다.



조금이라도 의학상식

**분신자살 기관절을 연합국회의에서 폭로**

국제교육발전조직(IED)은 2001 년 8 월 14 일 연합국제회의에서 천안문분신자살사건은 중공의 《국가공포주의 행위》라고 강렬하게 질책하였다. 성명은 록화테프에서 분석한데 의하면 옹근 사건은 《정부가 한 손으로 꾸민 것이다》라고 표명하였다. 중국대표단은 확실한 증거앞에서 변명하지 못했다. 이 성명은 이미 연합국에 등록되었다.

리웃도 입지 않고 마스크와 모자도 쓰지 않고서 세균이 가득 묻어있는 마이크를 들고서 가까운 거리에서 묻고 있었다.

● 분신자살 보도에서 의사가 말하기를 분신자살자에게 기관절개 수술을 하였는데 바로 성대 아래의 목에 관을 꽂고서 호흡을 도와주는 것이다. “분신자살”녀자아이 류사영은 기관을 절개한 4 일 후 관을 꼽은 채로 기자의 취재를 받았는데 목소리가 쉿쉿할 뿐만아니라 노래도 불렀다.



조금이라도 의학상식

**분신자살 기관절을 연합국회의에서 폭로**

국제교육발전조직(IED)은 2001 년 8 월 14 일 연합국제회의에서 천안문분신자살사건은 중공의 《국가공포주의 행위》라고 강렬하게 질책하였다. 성명은 록화테프에서 분석한데 의하면 옹근 사건은 《정부가 한 손으로 꾸민 것이다》라고 표명하였다. 중국대표단은 확실한 증거앞에서 변명하지 못했다. 이 성명은 이미 연합국에 등록되었다.

안개 및 연기에 포위되어 있는 녀자의 뒤머리를 힘껏 격타하자 그녀가 소리와 함께 땅에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 격타하던 자가 힘을 과도하게 썼기에 멸화기의 손잡이가 떨어지면서 공중으로 날아갔던 것이다 .”

“나는 당시 크게 놀랐다. 이것은 살인이 아닌가? 현장의 경찰들은 누구도 이 체격이 건장한 사나이를 묻지 않았으며 그더러 아무렇지도 않는 듯이 훌쩍 떠나가게 하였다. 나는 등골이 오싹해 나면서 속으로 십중팔구 누군가 살인임을 알았다.”

“후에 분신자살 진상 CD 를 보았는데 그중 느린화면에서 나타난 격타 받은 자의 뒤 머리 부분에서 날아간 길쭉한 물체는 기실은 멸화기의 손잡이이고 멸화기는 뿌려나온 기체에 가리워져 텔레비 화면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때문에 다년간 강택민 및 중공 정법위원회에서 파룬궁을 어떻게 요구화 하여도 나는 그들의 행위는 증오를 조성하려는 것 뿐이라는 것을 아주 똑똑히 알고 있었다.”

◆ 기관을 절개하고도 노래부를 수 있는가 ?

● 심한 화상 환자의 가장 큰 위험은 세균감염이다. 분신 자살자를 취재하던 기자는 도리어 격

안개 및 연기에 포위되어 있는 녀자의 뒤머리를 힘껏 격타하자 그녀가 소리와 함께 땅에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 격타하던 자가 힘을 과도하게 썼기에 멸화기의 손잡이가 떨어지면서 공중으로 날아갔던 것이다 .”

“나는 당시 크게 놀랐다. 이것은 살인이 아닌가? 현장의 경찰들은 누구도 이 체격이 건장한 사나이를 묻지 않았으며 그더러 아무렇지도 않는 듯이 훌쩍 떠나가게 하였다. 나는 등골이 오싹해 나면서 속으로 십중팔구 누군가 살인임을 알았다.”

“후에 분신자살 진상 CD 를 보았는데 그중 느린화면에서 나타난 격타 받은 자의 뒤 머리 부분에서 날아간 길쭉한 물체는 기실은 멸화기의 손잡이이고 멸화기는 뿌려나온 기체에 가리워져 텔레비 화면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때문에 다년간 강택민 및 중공 정법위원회에서 파룬궁을 어떻게 요구화 하여도 나는 그들의 행위는 증오를 조성하려는 것 뿐이라는 것을 아주 똑똑히 알고 있었다.”

◆ 기관을 절개하고도 노래부를 수 있는가 ?

● 심한 화상 환자의 가장 큰 위험은 세균감염이다. 분신 자살자를 취재하던 기자는 도리어 격

은 진정으로 성명쌍수의 공범이기에 진정으로 “찢싼런”에 따라 수련한다면 자연적으로 이런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 기실 나의 몸에서 발생한 신기한 일들은 너무나도 많으며 대법은 너무나도 초상적이다.

오늘까지도 나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어찌 이렇게도 큰 복이 있어 이렇게도 좋은 법을 얻을 수 있게 되어 사부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는 천마디 만마디로도 표달할 수 없다. ◇

 **밀 더미속의 2900원**

【명혜망】 나는 하남농촌의 대법제자이며 남편과 함께 작은 밀가루 공장을 꾸렸다. 우리들은 밀가루의 질량을 중요시하면서 근을 속이지 않고 말도 상냥하게 하고 레절있게 사람을 대하였다. 부근의 마을에서 밀가루를 바꾸러 오는 사람이 끊임없이 오기에 장사가 흥성하여 생활도 매우 뜻대로 잘되고 있다.

2007 년 설달의 어느 하루 가루내기 위하여 밀을 씻을 때 나는 밀 더미속에 작은 나무통 하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그 속에는 현금 2900 원이 있었다. 나는 갑자기 생각났다 : 내가 이런 일

은 진정으로 성명쌍수의 공범이기에 진정으로 “찢싼런”에 따라 수련한다면 자연적으로 이런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 기실 나의 몸에서 발생한 신기한 일들은 너무나도 많으며 대법은 너무나도 초상적이다.

오늘까지도 나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어찌 이렇게도 큰 복이 있어 이렇게도 좋은 법을 얻을 수 있게 되어 사부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는 천마디 만마디로도 표달할 수 없다. ◇

 **밀 더미속의 2900원**

【명혜망】 나는 하남농촌의 대법제자이며 남편과 함께 작은 밀가루 공장을 꾸렸다. 우리들은 밀가루의 질량을 중요시하면서 근을 속이지 않고 말도 상냥하게 하고 레절있게 사람을 대하였다. 부근의 마을에서 밀가루를 바꾸러 오는 사람이 끊임없이 오기에 장사가 흥성하여 생활도 매우 뜻대로 잘되고 있다.

2007 년 설달의 어느 하루 가루내기 위하여 밀을 씻을 때 나는 밀 더미속에 작은 나무통 하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그 속에는 현금 2900 원이 있었다. 나는 갑자기 생각났다 : 내가 이런 일

에 봉착하였는데 “쩐싼런”의 표준에 따라 해야 된다. 이것은 농민이 농사짓어 번 피땀의 돈인데 만일 찾지 못한다면 얼마나 조급하겠는가? 나는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찾아 올때까지 기다리기로 하였다.

하루 기다리고 이틀 기다리고 세날째 되던 날 아침에 조급하여 머리에 땀 투성이 된 한 중년 부녀가 부랴부랴 문에 들어서더니 바로 묻는 것이었다: “아주머니 몇일전에 내가 밀가루 바꾸러 왔을 때 밀 더미속에 작은 나무통 하나를 넣었어요. 그 속에 옥수수를 판 돈 2900 원이 있는데 당신이 보지 못하였나요?”

나는 그를 위안하면서 말하였다: “급해하지 말고 먼저 방에 들어와 몸을 따뜻이 하세요!” 나는 의자를 옮겨 그녀가 앉은 다음 말하였다: “나의 이곳에서 잃어버렸다면 당신의 복으로 잃을 수 없어요.” 말하면서 나무통을 그녀에게 넘겨 주었다. 그녀는 통을 열고 세여보니 한장도 적지 않았다. 당시 그녀는 한장의 지폐를 꺼내면서 격동되어 말하였다: “나는 정말로 좋은



에 봉착하였는데 “쩐싼런”의 표준에 따라 해야 된다. 이것은 농민이 농사짓어 번 피땀의 돈인데 만일 찾지 못한다면 얼마나 조급하겠는가? 나는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찾아 올때까지 기다리기로 하였다.

하루 기다리고 이틀 기다리고 세날째 되던 날 아침에 조급하여 머리에 땀 투성이 된 한 중년 부녀가 부랴부랴 문에 들어서더니 바로 묻는 것이었다: “아주머니 몇일전에 내가 밀가루 바꾸러 왔을 때 밀 더미속에 작은 나무통 하나를 넣었어요. 그 속에 옥수수를 판 돈 2900 원이 있는데 당신이 보지 못하였나요?”

나는 그를 위안하면서 말하였다: “급해하지 말고 먼저 방에 들어와 몸을 따뜻이 하세요!” 나는 의자를 옮겨 그녀가 앉은 다음 말하였다: “나의 이곳에서 잃어버렸다면 당신의 복으로 잃을 수 없어요.” 말하면서 나무통을 그녀에게 넘겨 주었다. 그녀는 통을 열고 세여보니 한장도 적지 않았다. 당시 그녀는 한장의 지폐를 꺼내면서 격동되어 말하였다: “나는 정말로 좋은



이웃들은 그녀가 파룬궁을 련공하는 것을 종래로 본적이 없었다고 하였다. 이웃들은 또 말하기를 류춘영은 그녀의 양모를 때리고 아울러 기생(三陪)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하였다. 류춘영은 파룬궁 학원이 아니었다.

◆ “610” 인원은 류춘영이 군대경찰에게 살해되는 것을 목격하였다

대기원 기자는 내막을 아는 사람의 소개를 통하여 류춘영이 살해된 사건을 환원하였다. 다음은 “천안문분신자살사건”의 목격자——중경 유충구 소십자 구역(重庆渝中区小十字片区)의 북경에서 파룬궁 학원을 가로막는 610 사업일군이 이 내막을 아는 사람과 이야기한 것이다: “나는 분신자살 사건 당일에 점심밥을 먹고 바로 천안문 광장에 가서 습관적으로 돌아다녔다. 거의 기념비로 갔을 때 돌계단 아래에 멸화기가 가득 쌓여 있는 것을 보고 바로 생각하였다: 무슨 일이 발생하려 한다! 나는 한편으로는 걸으면서 한편으로는 보았다. 잠깐 후에 북쪽편에서 불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나는 몇몇 경찰들을 따라 신속히 북쪽으로 달려갔다”

“내가 다그쳐 도착하였을 때 바로 한 건장한 군대경찰이 손잡이 멸화기를 휘둘러 전신이 기체

이웃들은 그녀가 파룬궁을 련공하는 것을 종래로 본적이 없었다고 하였다. 이웃들은 또 말하기를 류춘영은 그녀의 양모를 때리고 아울러 기생(三陪)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하였다. 류춘영은 파룬궁 학원이 아니었다.

◆ “610” 인원은 류춘영이 군대경찰에게 살해되는 것을 목격하였다

대기원 기자는 내막을 아는 사람의 소개를 통하여 류춘영이 살해된 사건을 환원하였다. 다음은 “천안문분신자살사건”의 목격자——중경 유충구 소십자 구역(重庆渝中区小十字片区)의 북경에서 파룬궁 학원을 가로막는 610 사업일군이 이 내막을 아는 사람과 이야기한 것이다: “나는 분신자살 사건 당일에 점심밥을 먹고 바로 천안문 광장에 가서 습관적으로 돌아다녔다. 거의 기념비로 갔을 때 돌계단 아래에 멸화기가 가득 쌓여 있는 것을 보고 바로 생각하였다: 무슨 일이 발생하려 한다! 나는 한편으로는 걸으면서 한편으로는 보았다. 잠깐 후에 북쪽편에서 불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나는 몇몇 경찰들을 따라 신속히 북쪽으로 달려갔다”

“내가 다그쳐 도착하였을 때 바로 한 건장한 군대경찰이 손잡이 멸화기를 휘둘러 전신이 기체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함에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면 어찌 구실이 없음을 걱정하라 (欲加之罪, 何患无辞)”는 류망변태의 추악함을 충분히 증명하고 있다.

◆ 불에 타 죽었는가 아니면 맞아 죽었는가 ?

중앙텔레비전 “분신자살절목”을 느린 화면을 돌리면 바로 볼수 있다 : 이른바 분신자살자 류춘영은 불에 타 죽은 것이 아니라 군대경찰이 무거운 물체로 머리 부위를 격타하여 넘어졌다. 《워싱턴포스트지》기자는 류춘영의 고향인 개봉에 직접 가서 취재하였는데



그림: CCTV 화면: 1: 휘두르는 팔이 류춘영의 머리를 호되게 내리친다. 2: 무거운 물체가 머리를 격타하고 뿌려 나간다. 3: 무거운 물체가 멸화기가 쏘는 반대 쪽으로 경찰에게 날아 갔다. 4: 외투를 입은 한 남자가 격타하던 위치에서 있는데 1 초전에 힘껏 격타하던 자세를 여전히 보존하고 있다.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함에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면 어찌 구실이 없음을 걱정하라 (欲加之罪, 何患无辞)”는 류망변태의 추악함을 충분히 증명하고 있다.

◆ 불에 타 죽었는가 아니면 맞아 죽었는가 ?

중앙텔레비전 “분신자살절목”을 느린 화면을 돌리면 바로 볼수 있다 : 이른바 분신자살자 류춘영은 불에 타 죽은 것이 아니라 군대경찰이 무거운 물체로 머리 부위를 격타하여 넘어졌다. 《워싱턴포스트지》기자는 류춘영의 고향인 개봉에 직접 가서 취재하였는데



그림: CCTV 화면: 1: 휘두르는 팔이 류춘영의 머리를 호되게 내리친다. 2: 무거운 물체가 머리를 격타하고 뿌려 나간다. 3: 무거운 물체가 멸화기가 쏘는 반대 쪽으로 경찰에게 날아 갔다. 4: 외투를 입은 한 남자가 격타하던 위치에서 있는데 1 초전에 힘껏 격타하던 자세를 여전히 보존하고 있다.

사람을 만났어요! 먼저 당신에게 감사드리겠으니 받아주세요!” 나는 말하였다: “감사드리려면 나의 사부님께 감사드려요. 나는 파룬궁을 련마하는 사람이며 대법제자들은 모두 좋은 사람이며 이 돈을 나는 한푼도 받으면 안돼요.” 떠나갈 때 나는 그녀에게 파룬궁 진상자료와 호신부 한장을 주었더니 그녀는 기뻐하면서 말하였다: “나는 돌아가서 꼭 가족과 마을 이웃들에게 파룬따파는 좋다는 것을 알리겠어요!”◇

대중의 말  
내리눌러도 넘어지지 않는 벼와  
불에 타지 않는 비닐 음료병사리

중공의 매체가 제일 정통한 것은 바로 거짓을 꾸며내는 것이다. 백성들은 비웃어 말하기를 인민일보에는 날자만 진짜인 것을 제외하고 기타의 것은 가능하게 모두 가짜일 것이다. 중공이 거짓을 꾸미는데는 아주 긴 력사가 있는 널리 알려져 있는 “무당만근”이 바로 그중의 한가지 례이다.

그것은 1958년 여름 가을시기(夏秋)에 《인민일보》, “신화사”등 관방 매체에서는 앞다투어 량식의 높은 산량 소식을 보도하였는데 무당 2 천근으

사람을 만났어요! 먼저 당신에게 감사드리겠으니 받아주세요!” 나는 말하였다: “감사드리려면 나의 사부님께 감사드려요. 나는 파룬궁을 련마하는 사람이며 대법제자들은 모두 좋은 사람이며 이 돈을 나는 한푼도 받으면 안돼요.” 떠나갈 때 나는 그녀에게 파룬궁 진상자료와 호신부 한장을 주었더니 그녀는 기뻐하면서 말하였다: “나는 돌아가서 꼭 가족과 마을 이웃들에게 파룬따파는 좋다는 것을 알리겠어요!”◇

대중의 말  
내리눌러도 넘어지지 않는 벼와  
불에 타지 않는 비닐 음료병사리

중공의 매체가 제일 정통한 것은 바로 거짓을 꾸며내는 것이다. 백성들은 비웃어 말하기를 인민일보에는 날자만 진짜인 것을 제외하고 기타의 것은 가능하게 모두 가짜일 것이다. 중공이 거짓을 꾸미는데는 아주 긴 력사가 있는 널리 알려져 있는 “무당만근”이 바로 그중의 한가지 례이다.

그것은 1958년 여름 가을시기(夏秋)에 《인민일보》, “신화사”등 관방 매체에서는 앞다투어 량식의 높은 산량 소식을 보도하였는데 무당 2 천근으

로부터 신속히 “무당만근”까지 상승하였다. 어처구니없는 매 하나의 “신문”중에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이런 사진이다 : 아이가 많고 뺨뺨한 벼 위에 앉거나 서 있지만 벼는 여전히 넘어지지 않았다.

매체를 리용하여 부추킨 후 중공의 “대약진운동”이 등장하였다. “대약진”이 초래한 대기근에 천만에 달하는 중국의 백성들이 산채로 굶어죽었다.

\*\*\* \*\*



그림: 내리눌러도 넘어지지 않는 벼. 당년에 관방 매체는 무당만근을 선전하기 위하여 온통 이러한 “신문”만 보도하였다.

“내리눌러도 넘어지지 않는 벼”라는 거짓말 시대는 지나갔다. 하지만 “당”이 사람을 못살게 구는 운동은 오히려 멈추지 않았으며 그것이 거짓을 꾸미는 수단도 대대로 이어왔다. 2001년 1월 23일 중앙 텔레비전에서는 “천안문 분신자살 사건”을 방송하여 파룬궁에게 들썩웠다. 중앙 텔레비전에서 방송한 분신자살 화면에는 매우 많은 헛점들이 드러났는데 몇가지만 예를 들겠다.

◆ 불에 타지 않는 비닐 음료병:

왕진동의 온몸은 불에 타서 새까맣게 되었으나 두 다리 사이에 있는 휘발유를 담은 비닐 음료병은 불길속에서 전혀 손상받지 않았다. 이 “불에 타지 않는 비닐병”은 가히 당년의 “내리눌러도 넘어지지 않는 벼”와 추악함을 겨룰만하다. 중앙 텔레비전의 화면중에 경찰은 멸화탄자를 손에 들고서 왕진동의 뒤통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왕진동이 카메라를 보면서 구호를 외친 다음에야 비로서 멸화탄자를 덮었다. 이것은 도대체 분신자살인가 아니면 연극인가?

그 어떠한 거짓도 역사의 검증에 견디지 못한다. 2002년 분신자살 안건의 유일한 취재기자 리옥강은 하북성 법제교육 센터에서 (중공이 설립한 파룬궁 학원에 대한 불법 세뇌를 진행하는 곳) 불법으로 그곳에 갇혀 있던 파룬궁 학원들이 왕진동의 두 다리 사이에 있는 휘발유를 담은 비닐 병에 관한 사실을 물었을 때 리옥강은 말문이 막혀 부득불 승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 비닐 병은 그들이 넣은 것이며 이 화면은 후에 “보충하여 찍은 것이다”. 얼마나 어이없고 또 황당한 대답인가, 이것은



로부터 신속히 “무당만근”까지 상승하였다. 어처구니없는 매 하나의 “신문”중에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이런 사진이다 : 아이가 많고 뺨뺨한 벼 위에 앉거나 서 있지만 벼는 여전히 넘어지지 않았다.

매체를 리용하여 부추킨 후 중공의 “대약진운동”이 등장하였다. “대약진”이 초래한 대기근에 천만에 달하는 중국의 백성들이 산채로 굶어죽었다.

\*\*\* \*\*



그림: 내리눌러도 넘어지지 않는 벼. 당년에 관방 매체는 무당만근을 선전하기 위하여 온통 이러한 “신문”만 보도하였다.

“내리눌러도 넘어지지 않는 벼”라는 거짓말 시대는 지나갔다. 하지만 “당”이 사람을 못살게 구는 운동은 오히려 멈추지 않았으며 그것이 거짓을 꾸미는 수단도 대대로 이어왔다. 2001년 1월 23일 중앙 텔레비전에서는 “천안문 분신자살 사건”을 방송하여 파룬궁에게 들썩웠다. 중앙 텔레비전에서 방송한 분신자살 화면에는 매우 많은 헛점들이 드러났는데 몇가지만 예를 들겠다.

◆ 불에 타지 않는 비닐 음료병:

왕진동의 온몸은 불에 타서 새까맣게 되었으나 두 다리 사이에 있는 휘발유를 담은 비닐 음료병은 불길속에서 전혀 손상받지 않았다. 이 “불에 타지 않는 비닐병”은 가히 당년의 “내리눌러도 넘어지지 않는 벼”와 추악함을 겨룰만하다. 중앙 텔레비전의 화면중에 경찰은 멸화탄자를 손에 들고서 왕진동의 뒤통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왕진동이 카메라를 보면서 구호를 외친 다음에야 비로서 멸화탄자를 덮었다. 이것은 도대체 분신자살인가 아니면 연극인가?

그 어떠한 거짓도 역사의 검증에 견디지 못한다. 2002년 분신자살 안건의 유일한 취재기자 리옥강은 하북성 법제교육 센터에서 (중공이 설립한 파룬궁 학원에 대한 불법 세뇌를 진행하는 곳) 불법으로 그곳에 갇혀 있던 파룬궁 학원들이 왕진동의 두 다리 사이에 있는 휘발유를 담은 비닐 병에 관한 사실을 물었을 때 리옥강은 말문이 막혀 부득불 승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 비닐 병은 그들이 넣은 것이며 이 화면은 후에 “보충하여 찍은 것이다”. 얼마나 어이없고 또 황당한 대답인가, 이것은

